

<https://doi.org/10.7236/IIBC.2017.17.4.61>

IIBC 2017-4-8

음모론 혹은 토론의 장으로써의 인터넷 방송: Afreeca TV의 망치부인을 중심으로

Internet Broadcasting As a Place for Conspiracy Theory or Discussion: Focus on BJ Hammer Wife of Afreeca TV

한석희*

Sukhee Han*

요약 본 연구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크게 성장 중인 인터넷 방송의 모습을 탐구한다.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기존의 시청자들 개인이 스스로 방송하게 되는 인터넷 방송 시장이 새롭게 태어났다. 국내에서 가장 대중적인 인터넷 방송 플랫폼은 Afreeca TV로, Broadcasting Jockey(BJ)들이 자신의 채널에서 고유의 콘텐츠로 다양한 장르의 방송을 하고 있다. 근래의 혼란스러운 한국 사회와 맞물려, 시사/정치의 장르도 인기가 점점 높아진 장르로 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시사/정치 부분에서 유명한 BJ 망치부인을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그녀의 채널의 특징, 의견, 시청자들과 소통 방법이 한국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에 대해 어떠한 시사점을 던지는 지 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인터넷 방송이 음모론 혹은 토론의 장이 되는지에 대해 입체적으로 탐구하고, 더 나아가 인터넷 방송의 청사진에 대해 토론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various aspects of the Internet broadcasting that has rapidly increased in South Korea recently. Due to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the Internet Broadcasting industry that ordinary viewers do the broadcasting themselves has appeared. Today, the most popular platform of the Internet broadcasting in South Korea is “Afreeca TV”, which allows BJs do broadcasting in their channel with own contents. Related to current chaotic Korean society, Current Affairs/Politics becomes one of the new popular genres. Specifically, this study focuses on BJ Hammer Wife as a case study, who is famous in the Current Affairs/Politics industry. Then it examines what characteristics of her channel, her opinions, and the method of communication with common viewers implicate messages regarding the freedom of speech in South Korea. Throughout this, it explores that the Internet Broadcasting functions as a place for conspiracy or discussion, and discusses the blueprint of the Internet broadcasting.

Key Words : Internet Broadcasting, Afreeca TV, BJ Hammer Wife (Mangchi Booin), Freedom of Expression, Communication

I. 서론

2017년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매우 혼란중인 상황이다.

다. 제 18대 대통령 박근혜가 측근 최순실을 중심으로 다룬 정치인들과 기업들로부터 부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고 회사와 공공기관의 업무에 편의를 봐주는 등

*준회원, 한양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접수일자: 2017년 5월 26일, 수정완료: 2017년 6월 26일
게재확정일자: 2017년 8월 11일

Received: 26 May, 2017 / Revised: 26 July, 2017 /

Accepted: 11 August, 2017

*Corresponding Author: dosukheert@gmail.com

Department of Media Communication, Graduate School, Hanyang University, Korea

여러 위법 행위를 인하여 지난 3월 10일 대법원 만장일치로 탄핵되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 국가 원수가 파면된 역사적 사건이다. 현재 박근혜는 서울 구치소에 수감 되어 지속적으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혐의를 부정하고 있다. 검찰은 박근혜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을 적용하여 구속기소 하였으며 18개의 혐의가 적용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에게 적용한 뇌물액수는 기존의 433억에서 592억으로 늘어났으며 여기에는 롯데 신동빈 그룹 회장이 케이스포츠 재단에 추가 지원했다가 돌려받은 액수가 포함된다^[1].

박근혜 전(前) 대통령의 파면 사건은 매우 충격적이었으며, 사회적으로도 여러 논란을 야기 하였다. 우선, 박근혜가 유명 정치인이나 기업인이 아닌 자신과의 오랜 우정을 지닌 측근 최순실과 매우 민감한 정치적 논의를 하며 대통령 연설문, 청와대 인수위 자료 등 여러 문서를 넘겨준 상황 그 자체가 충격적이다.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을 실질적으로 조종하고 있어 국정개입을 한 “비선실세”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지극히 평범했던 최순실을 박근혜가 신뢰했던 이유 중 하나는 최순실의 부친인 최태민과 박근혜의 오랜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최태민 또한 영세교라는 종교의 창시자 및 여러 부정행위로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아울러, 대통령 탄핵 선고 후에도, 탄핵이 매우 잘못 됐음을 주장하는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단체의 탄핵 무효 시위, 박근혜를 지지했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일부가 탈퇴하여 바른 정당에 가입하는 상황, 또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제 19대 대통령 선거가 2017년 5월 9일에 조기에 실시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한국 사회의 정치적인 부분은 매우 큰 논쟁거리이며, 사회적 갈등은 매우 심해 보인다. 방송 및 언론의 측면에서, 보다 중요한 점은 미디어가 어떻게 그리고 왜 보도 하였고 상황이 진행 되었는지에 대하여 탐구할 필요성이 있다. 사건의 발단은 종합편성채널 JTBC 취재팀이 2016년 10월 더블루케이 강남 사무실에서 태블릿 PC를 발견한 것으로 시작된다. 최순실의 회사 근무자들은 회사를 옮기면서 태블릿 PC를 두고 갔는데, 방송국 기자가 이를 발견 및 압수하여 최순실과 박근혜의 관계를 밝혀내기 시작 하였다. JTBC의 모회사는 중앙일보가 포함되어 있는 중앙미디어네트워킹으로, 다소 보수적인 성격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TBC에서 시작

된 보도는 최종적으로 박근혜를 탄핵 시키고 박근혜의 측근들을 구속시키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박근혜 탄핵은 현재 진행 중이며, 박근혜가 구속이 된다면 어느 정도의 실행을 선고 받을지도 큰 관심사이다.

JTBC의 보도 및 검찰의 지속적 수사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수많은 네티즌들은 충격을 받고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및 단체는 극소수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치/시사적인 모습에 인터넷 방송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토론하는지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탐구한다. 인터넷 방송은 기존의 인터넷 커뮤니티와는 다르게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고 인터넷 방송 시청자들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는 특징이 존재한다. 정치/시사 분야는 게임이나 먹방(먹는 방송)에 비하여 아직까지는 다소 대중적이지 않은 장르이다. 그러나 정치/시사 분야와 관련된 인터넷 방송의 고유한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인터넷 방송이 한국 사회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더 나아가 한국 사회에서 적절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대중적인 인터넷 방송 플랫폼인 Afreeca TV에서 1인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는 BJ “망치부인”을 사례로 선정하여 연구 및 분석을 실시한다.

II. 이론적 논의

1. 표현의 자유

대한민국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에서 보호받는다.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와 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규정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의 자유는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사회 문제 중 하나로 평가 받는다. 한국 전쟁(1950~1953) 이후, 북한과 휴전 중인 상황이라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오랫동안 반공사상 교육, 언론, 예술을 탄압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특히 제 4공화국(1972~1981)과 제 5공화국(1981~1988) 시절, 군부 정권에 철권통치 시기 정부는 언론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강압하게 규제 하였다. 군사정권은 언론이 정부정책의 협력자로서 국가의 협력과 발전을 위해 필요하

다는 요청을 주장해 왔다. 자연스레, 그 당시 여러 언론사들은 수시로 탄압 및 규제를 받았으며, 몇몇 편집국 기자들과 방송인들은 남산 중앙정보부 등에 끌려가 조사를 받는 일도 자주 일어났다. 특히 제 4공화국 시절에는 기자들을 문공부에 등록 시켜 언론을 쉽게 조종하려는 노력을 시도 하였다.

시간이 흘러 한국 사회는 민주화 운동 및 문민정권이 들어섬에 따라 표현의 자유는 점차 인정받고 확대 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 현재 한국 사회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다소 논란이 있다.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나 역사에 관련된 표현의 자유문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어디까지 표현의 자유가 허용 되는지는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다. 2008년 MBC 광우병 보도는 그 예시가 될 수 있다. 2008년 MBC 광우병 보도에 관한 사법부(서울고법)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제작진 전원 무죄를 선고 하였으나, 방송 일부분에 있었던 허위적 보도가 단순 착오인지 의도적 실수 이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논란이 되었다^[2]. 뿐만 아니라, 근래에는 남성과 여성의 갈등에서 태어나는 여성/남성 혐오적 표현이 어디까지 허용이 되어야 하는지도 새롭게 논의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이 되어야만 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디까지가 진실한 표현의 자유이며 어디까지 허용 및 규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화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2. 인터넷 방송

과학 기술의 발달은 자연스럽게 미디어 시장에도 영향을 주었다. 1990년 후반부터 인터넷 기술이 급격히 발달 하고 보급 되면서, 방송국들이 자신의 프로그램을 다시 보기 하는 서비스 또는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광고 프로그램을 보여주기 시작 하였다. 더 나아가, 개인이 자신의 채널에서 고유의 콘텐츠로 직접 방송을 하고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실시간 형태의 “인터넷 방송”의 형태가 새롭게 태어났다. 초기 인터넷 방송을 동영상 포털 사이트, 포털 사이트의 인터넷 방송, 지상파 방송의 인터넷 방송 서비스, 뉴스 서비스로 구분 되는데^[3],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인터넷 방송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직접 방송하는 1인 미디어의 형태의 인터넷 방송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Kakao TV, Afreeca TV, Popkon TV 등이 유명하며 미국의 경우 게임 전문 인터넷 방송인 Twitch TV가 대종적이다. 인터넷 방송은 매년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학술적 논의도 태어나기 시작 하였다. 인터넷 영상 이용자와 이를 시청한 방법이 스마트폰인 것이 밝혀져 이를 토대로 Afreeca TV의 구성과 성장 요인을 분석 하였다^[4]. MCN(Multi Channel Network)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 동영상 콘텐츠 산업의 국내 및 해외의 현황과 발전 방향진단을 하여, 초기의 개인 창작자의 수익모델은 광고 수익 배분이나 “별풍선”과 같은 유료 아이템에 한정 되어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화 되었다고 주장 하였다^[5]. 또한, 인터넷 개인방송의 이용동기와 사회적 시청 요인(의사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실재감, 주관적 규범)이 시청량, 만족도, 그리고 지속이용의사와 지불의사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여, 인터넷 방송을 하나의 매체로 판단하여 분석 하였다^[6]. 최근에는 Afreeca TV의 인기채널들의 특징을 연구했는데, 여성 BJ들은 프로필 사진에 자신의 사진을 올리는 경향이 남성 BJ들보다 컸다^[7].

한 편, 인터넷 방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선정성과 폭력성이다. Afreeca TV의 경우 시청자가 기부금 형태의 “별풍선”을 방송 BJ에게 선물 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 BJ들은 이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별풍선”을 얻기 위해 인터넷 방송 BJ들은 매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의 방송을 실시하여 여러 차례 논란이 되었으며, 결국 Afreeca TV의 인기 BJ 6명은 욕설 및 장애인 비하의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8]. 종합하면, 인터넷 방송은 개개인인 자신의 고유 콘텐츠를 통해 직접 방송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송 제작의 측면에서 대중성과 독창성을 가져왔지만, 방송 콘텐츠 내용이 유해로운 모습을 보여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3. 망치부인

현재 국내에서 유명한 인터넷 BJ 중 한 명은 “망치부인”이다. 망치부인의 본명은 이경선으로 경희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시 의원 등으로 활동한 김용석의 아내이다. 망치부인이라는 닉네임의 뜻은 영화 쇼생크 탈출(*The Shawshank Redemption*)에서 유래하며, 2007년부터 현재까지 Afreeca TV에서 “망치부인의 시사수다방”이라는 제목으로 시사/정치 분야에서 개인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다^[9].

망치부인은 자신의 고유한 생각과 철학도 주장하면서 자신의 방송의 정당성을 논의했다. 1:1 인터뷰에서, 망치

부인은 개인적 견해를 밝혔다. 망치부인이 방송을 한 계기는 지난 2007년 12월 태안 기름 유출사고에서 언론은 자원봉사만 이야기 하고 누가 책임을 지고 막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해 개인 방송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인터넷 방송이 네티즌 여론 형성의 역할에 있어서, 망치부인은 네티즌들이 우왕좌왕 할 때 대응논리를 마련해 주며 여론을 형성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방송 시작 전 정보 수집과 방향 설정은 포털 사이트에서 상위권 뉴스를 수집하여 방송 기초를 잡고, 그 후 다음 아고라(Daum Agora)에서 댓글들을 분석하여 어디서 갈등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조사한다. 망치부인은 자신이 언론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나름대로 팩트(fact)를 수집해서 확인하고 네티즌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주장 하였다^[10].

하지만, 망치부인은 2가지 사건으로 법정 공방을 벌인 경험이 있어 개인의 견해와 방송활동과는 별도로 논란 및 비판을 받기도 한다. 첫째, 지난 4.11 총선 당시 서울 도봉갑 지역구에서 “이백만 후보가 2010년 도봉구청장 선거 때 이동진 후보의 바지”를 찢었다고 언급하여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11]. 둘째, 인터넷 방송 진행자 망치부인이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국가정보원 직원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실시하였다. 인터넷에서 자신의 가족을 비하하고 모욕하였기 때문에 소송이 시작되었고, 검찰 수사에서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인 사실이 밝혀진 특징이 존재했다. 과거에도 소송을 했지만,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인지 불확실하다며” 망치부인이 패소하였는데, 이번에 망치부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다시 제기한 것이다^[12].

다시 말해, BJ 망치부인은 기존의 인터넷 방송에서 인기 있었던 게임이나 먹는 방송(먹방)의 장르가 아닌 정치/시사 분야를 개척하고 또 독자적인 인기를 가진 BJ로써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망치부인의 방송은 다른 인터넷 방송 BJ와 마찬가지로 개인이 직접 방송을 하는 1인 미디어의 형태이지만, 장르가 일반적이지 않고 다양하고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서 앞서 언급된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이는 인터넷 방송이 과거 비판을 받아왔던 폭력성과 선정성의 측면 보다는 표현의 자유에서 문제가 대두된다.

III. 연구문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여러 인터넷 방송 플랫폼 중 가장 대중적인 Afreeca TV를 선택하여 탐구한다. Afreeca TV는 한국에서 현재 가장 대중적인 인터넷 방송 플랫폼이며, 실질적으로 독점 상태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시사/정치 장르에서 가장 유명하고 Afreeca TV에서 여러 차례 수상 경력이 있는 BJ 망치부인의 채널을 사례 연구로 설정하여, 보다 심화적으로 인터넷 방송의 특징들을 탐구한다. 현재 BJ 망치부인은 Afreeca TV에서 주기적으로 실시간 방송을 하며, 방송 후에도 녹화한 내용을 자신의 YouTube 채널에 업로드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하여, 필요 시 일정 부분을 시청하여 연구에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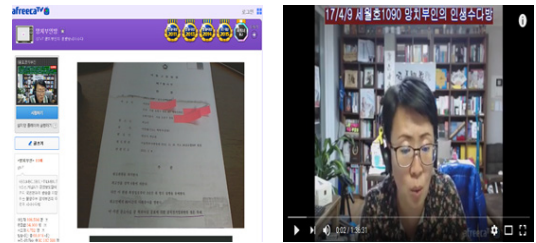


그림 1. 망치부인의 Afreeca TV 메인화면과 YouTube 재방송 화면

Fig. 1. Main Picture of Afreeca TV and Re-broadcasting Picture of YouTube on Hammer Wife's Channel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논의되는 연구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인터넷 방송(아프리카 TV)이 기존의 미디어의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에 있어 차이점은 무엇인가?

연구 문제 2: 인터넷 방송(아프리카 TV)이 기존의 미디어와의 표현의 자유의 측면에서 차이점은 무엇인가?

연구 문제 3: 인터넷 방송(아프리카 TV)의 하나의 콘텐츠으로써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은 무엇인가?

3개의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J 망치부인의 방송 시청, Afreeca TV 이용 약관, 인터넷 방송 관련 뉴스 기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 등을 참고하여 다각적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양적연구가 아니라 질적연구에 가깝지만, 객관적 데이터와 사례 등을 참고하여 최대한 명확하고 의미 있게 분석을 실시한다. 덧붙여, 인터넷 방송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 국내 학술지에

등재 되었던 과거의 연구 사례를 참조하여 학술적으로 탐구한다.

IV. 연구결과

1. 연구문제 1

BJ 망치부인의 방송이 기존의 시사/정치 프로그램과 다른 점은 여러 가지로 존재한다. 첫째, 망치부인의 방송은 1인 미디어이다. 일반 시사/정치 프로그램의 취재, 토론, 토크 쇼, 법률 사례 해석, 범죄 보도, 다큐멘터리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시사/정치 프로그램들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사람이나 집단과의 대화 및 행동 양식을 보여주고 있으나, 망치부인은 독자적으로 하는 1인 방송이라는 점이 있다. 그러므로 논란중인 문제를 보도할 때 상반되거나 엇혀있는 의견을 모두 보여주기 보다는 자신의 정치 색깔을 강하게 들어내는 형식이다. 둘째, 기본적으로 망치부인은 본인이 직접 취재하는 이야기는 극히 드물고, 다른 뉴스 기사를 재구성하여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망치부인의 방송은 시사/정치의 장르로 구별 될 수 있으나, 본인 스스로 취재를 하지 않는 점은 다소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취재라는 것은 미디어 산업에서 기본적이면서도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프로그램 제작자뿐만 아니라, 기자, 아나운서, 학생들도 자발적으로 취재를 하면서 사실에 접근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망치부인의 방송을 보면 가끔 유명 정치인을 인터뷰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스스로 취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기존의 뉴스와 방송 프로그램들을 기반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망치부인의 방송의 다소 전문적이거나 새로운 정보를 발견하는 것에는 다소 부족한 점을 알려준다. 셋째, 망치부인은 자신의 방송국에 접속하는 시청자들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으나 때로는 적합하지 않은 시청자들을 차단하고 있다. Afreeca TV와 같은 인터넷 방송은 인터넷 BJ가 자신의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들과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므로, 기존의 미디어와는 보다 소통의 방식이 깊고 대응 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망치부인 또한 시청자들과 직접 소통을 하면서 시청자들이 의문을 가지는 내용을 (재) 설명 해주고,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치부인은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크게 상반되

는 의견을 주장하거나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키는 시청자들을 강제 퇴장을 시키는 모습도 자주 보여주고 있다. 즉, 망치부인은 시청자들과 소통을 중요시 하면서도 소통의 방향은 때로 일방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연구문제 2

표현의 자유의 측면에서, 인터넷 방송과 기존의 미디어가 갖는 가장 큰 차이점은 인터넷 방송이 현행법상 방송의 개념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규제 및 처벌의 방식도 다르다는 점이다. 현재, 인터넷 방송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규제는 없으며, 단지 인터넷 방송 가이드라인 등을 통하여 자율적 규제의 권고가 존재 할 뿐이다. 인터넷 방송에는 “방송”이라는 단어가 존재 하지만, 방송 사업자들은 달리 다양한 불특정 다수에 자유로운 콘텐츠와 표현을 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내의 모든 인터넷 방송을 감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몇몇 정치인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는 안을 발의하거나 인터넷 방송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비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통적인 방송은 공정성과 공공성 유지여부를 사후에 심의를 받으며, 허가, 승인, 등록 등의 사전 규제를 받지만, 인터넷 방송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신고 절차만 있으면 누구나 서비스하면서 정보통신망법 44조의 7항 음란·도박·명예훼손 등 불법 정보 및 청소년유해 정보에 대해서만 사후 규제를 받고 있다. 단지, 인터넷 방송에 대한 구체적인 불법·유해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명시되어 있다¹³⁾.

실제로, 실시간 불법 및 유해 방송에 대해 민원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다¹⁴⁾.

Q. 실시간 불법·유해방송(도박, 음란내용)도 민원신청 가능한가요

A. 우리 위원회는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에 대해서만 심의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은 ‘유통’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위해 민원내용을 확인할 시점에 ‘유통’이 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실시간 방송을 통해 불법정보가 유통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방송영상, 방송 캡처화면 등)를 첨

부하여만 심의가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 답변은 실시간으로 행해지는 인터넷 방송이 민원 내용을 확인할 시점에 방송(유통)이 되지 않으면 심의 할 수 없으며, 불법적인 정보가 존재할 경우 반드시 증거자료가 있어야만 심의 및 규제가 가능한 것을 알려준다. 또한, 행정기관(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 자의적으로 인터넷 게시물에 불법성을 판단하고 게시물 삭제 등 인터넷 망으로부터 제거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내용의 불법성 여부는 행정기관이 아닌 법원에서 판단하며 불법이 아닌 다른 분야 심의는 자율 규제가 바람직해 보인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15].

3. 연구문제 3

연구문제 1과 연구문제 2를 기반으로, 결국 시사/정치 분야에서 인터넷 방송이 21세기 미디어 산업에서 어떠한 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적으로 BJ 망치부인 방송의 장점은 1인 미디어의 장점을 극대화 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인터넷 방송에서 가장 큰 인기 있는 장르는 게임과 먹는 방송(먹방) 이었는데, 시사/정치 분야에서 10년 넘게 방송을 하며 보다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던 망치부인의 노력은 높게 평가 받을 수 있다. 특히, 망치부인은 여러 차례 베스트(인기) BJ 등과 같은 상을 수상하면서 Afreeca TV에서 높은 순위에 올라와 있어, 그 인기가 다른 시사/정치 분야에서 활동하려는 아마추어 BJ들에게도 본보기가 될 수 있다. 또한, 망치부인의 방송은 하루 보통 3~4시간, 조금 길어지면 5~6시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일시적으로 몰아서 하는 방식도 1인 미디어의 고유의 장점을 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BJ 망치부인의 방송의 내용은 기존의 프로그램과 비교 해 보았을 때, 다소 전문적이지 않으며, 소통의 방식에서도 편향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정확한 데이터 및 통계, 주요 인물과의 심층 인터뷰, 법률적 해석은 유명 시사/정치 프로그램과는 같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단지 새로운 의견과 음모론 이라고 생각 될 수 있는 독특한 발상을 제공해준다. 예를 들어, 2015년 리퍼트 주 한미국 대사 테러 사건을 두고, 별명인 망치부인은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우과가) 사건의 배후를 논하면서

민주화 인사들의 뒤를 털고, 한·미 동맹을 이야기하면서 미국의 비싼 무기를 사는 결론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16]. 그 외에도, 망치부인은 연예인들이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가 특정 뉴스를 덮어버리기 위해서이며, 정부가 국민들을 쉽게 조종하기 위해 3S 정책(Screen, Sports, Sex)를 펼치고 있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의 예를 들면, 망치부인은 오늘날 아파트가 안전하지도 않은 상태로 매우 빨리 지어지고 있으며 건설업자들은 그것을 판매하고 전세 대란을 통해 이득을 취한다고 음모론을 언급 하였다^[17]. 그러나 인구밀도가 높은 대한민국 사회의 현실상 상류층들이 고도의 이득을 취해사라기보다는 지리적 특성에 때문이 더 가까워 보인다.

다시 말해, 이러한 생각과 개념은 다소 새롭다고 해석될 수 있으나, 이를 설명하는 논리적 근거와 설득력 부분에서는 부족해 보이며 개인 스스로 취재를 하여 "특종"을 취재하는 경우도 매우 미비하다. 이는 언론인으로써 전문적 행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

V. 시사점

논의된 연구 결과들은 인터넷 방송의 특징과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서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방송은 현재 과도기에 있으며 보다 명확하지 않은 규제와 가이드라인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터넷 방송이 표현의 자유에서 억압되고 사회적으로 피해를 일으킨다면 이러한 책임을 누가 가장 크게 지고 규제할지에 대한 문제이다. 인터넷 방송 BJ가 방송을 주도적으로 하므로 BJ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인터넷 방송 플랫폼인 Afreeca TV가 얼마나 규제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늘어나는 인터넷 방송을 주기적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문제를 일으키는 BJ들을 출두하는 경우도 존재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방송에서의 규제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하에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지는 보다 학술적이고 심도 있는 분석과 적용이 필요하다. 인터넷 방송의 문제점을 크게 4가지로 존재한다. ① BJ가 다양한 성향을 가진 시청자들의 방송 프로그램 소비욕구를 채워주기 보다는 '별풍선'(시청료

개념)을 받기 위해 더욱 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점 ② 인지도가 높은 BJ가 반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방송을 한 경우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은 점 ③ 현재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규제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 사업자가 내부 이용정책에 따라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율규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④ 인터넷 개인방송을 규제할 현행 법률이 없기 때문에 관리 및 감독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제재수단이 마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모든 개인방송을 규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점을 지적 하였다^[18]. 이러한 인터넷 방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방송을 제공하는 사업자 스스로 자율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도 하였으며^[19], Afreeca TV CEO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과 방송 BJ들이 협력하여 새로운 생태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20].

한 편, 몇몇 인터넷 방송이 정치적 편향을 지닌다고 해서 그것을 규제하는 것은 옳바르지 않다. 정치학에서는 선택적 노출(Selective Exposure)라는 용어가 존재한다. 선택적 노출이란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치 않는 정보는 회피하고, 자신들이 선호하는 정보에 의식적으로 노출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즉, 미디어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접하는 수만 가지의 정보들 중에서 자신들이 원하고 관심 있는 정보 매체에 응답을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흡연자들은 흡연 행위가 건강에 나쁘고 질병을 유발한다는 뉴스보다는, 흡연을 해도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듣는 것이다. 이러한 선택적 노출은 미디어 소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정치 분야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미국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에게 유리한 뉴스를, 공화당 지지자는 공화당에게 적절한 뉴스를 소비하면서 자신들의 원하는 생각을 미디어 소비와 일치시키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선택적 노출이 인터넷 및 뉴 미디어 생태계에서도 발견되고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인터넷은 이미 우리들의 일상 속에 존재하고 있으며,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들의 발달로 인터넷과 같은 가상 세계에 접속하는 방법은 더욱 편리해졌다. 온라인 미디어 환경에서 일반인들은 원하는 정보만 접하고 원치 않는 정보는 회피하려는 경향이 존재한다. 이러한 행동은 인터넷을 통해 다양하고 새로운 의견을 받아들이기 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정

치적 지지와 의견을 강화하면서 자신들과 같은 정치적 성향을 가진 타인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도 한다. Facebook, Instagram, Twitter와 같은 SNS에서도 일반 시민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주장하면서도 자신들과 생각이 같은 사람들과 군집한다. 국내의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들 또한 정치적 편향이 존재 하는 측면을 보았을 때, 인터넷과 같은 뉴 미디어가 사람의 정치적 견해를 변화시킨 다기 보다는 선택적 노출이 발견되는 장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BJ 망치부인에게 적용해 보면, 망치부인 또한 본인의 고유한 정치적 색깔을 지니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실제로, 지금까지 망치부인이 Afreeca TV 방송에서 반사회적이거나 외설적인 발언으로 큰 문제는 된 적은 없었으며, 정치적 발언 또한 불법적인 행위로 평가 받지 않았다. 오히려, 망치부인의 음모론적 이야기는 교육적인 기능을 한다고 평가 받을 수도 있다. 한국 사회에서 있었던 “종북 음모론”을 기반으로 음모론의 유래와 기능을 탐구한 연구에서, 음모론, 특히 안보에 대한 공포를 함께 퍼뜨리는 정권과 정보기관 발 음모론의 거듭된 반복은 대단히 짜증스럽고 화가 나지만, 이러한 음모론의 반복 아래 어떤 강박(인간 안의 상처와 인간의 역사를 낳는 근원적 상처들)이 숨어 있는지 제대로 알 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조금이나마 자유로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21]. 이는, 음모론이라는 것이 비록 매우 과학적이지 않더라도 하더라도, 음모론을 통해 인간은 생각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뉴) 미디어에서 표현의 자유를 더 깊게 주장하는 시민들도 다수 존재한다. 예를 들어, 언론시민개혁연대라는 시민단체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디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차기 정부의 개혁과제”를 발표 하였는데, 언론연대는 미디어 민주주의의 5대 가치(미디어 공공성, 언론표현의 자유, 정보인권, 시민주권, 방송의 독립성)을 주장하면서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22] 아울러, 현재 한국 사회는 차기 대선과 관련하여, 가짜 뉴스(fake news) 처벌에 대한 의견도 논란 중에 있다. 가짜 뉴스가 위법적인 행위에는 틀림이 없으나, 가짜 뉴스 단속법안의 제재보다는 정치권의 신뢰회복이 먼저라는 지적이 있다. 시민단체들은 법안이나 정치인에 대한 풍자를 가짜 뉴스로 몰아 붙여 차단하게 만들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이미 가짜 뉴스를 규제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23].

종합하면, 본 연구는 인터넷 방송의 규제의 모호함을 다시 한 번 들어내고 분석할 필요함을 보여준다. 인터넷 방송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에서 망치부인이 제시하는 이야기와 의견이 한국사회에서 어느 정도 표현의 자유로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한 정확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망치부인의 음모론적인 이야기가 정확히 어떻게 그리고 왜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덧붙여, 규제가 필요한 경우, 규제를 함에 있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할 수는 있으나,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가 자율규제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방송사업자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 및 권고 하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방송에서 불법·유해정보의 유통을 근절하고,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아 인터넷방송사업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은 ① 인터넷방송에서 금지하는 불법·유해정보 내용을 구체화한 자율규제 기준 확립 ② 실시간 방송 모니터링 강화 ③ BJ 관리 강화 ④ 어린이·청소년 보호대책 강화 등 4가지 부분에서 사업자들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BJ 관리 강화는 “방송 제재 및 재개 기준 명확화”, “자격 유지 및 등급 상향을 위한 법규와 언어 교육 이수 의무화”, “인기도·등급 등에 따른 차별적 제재 및 상위 등급 BJ에 대한 가중 제재 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추가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화된 19세 이상 시청자 등급 분류를 전제, 7세, 12세, 15세, 19세로 세분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 하였으며 방송심의위는 사업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BJ 및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심의규정 교육도 지원하기로 했다^[24]. 이러한 자율규제는 인터넷 방송을 보다 발전시키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미디어 생태계를 확립하는데 적절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Afreeca TV의 정책 안내를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Afreeca TV 정책 안내는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권리침해신고센터, 운영정책으로 나누어져 있다. 운영정책에서 방송규제항목이 ① 음란 ② 불법 ③ 청소년 유해 ④ 저작권 ⑤ 명예훼손 ⑥ 기타로 분류되어 있으며, 망치부인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항목은 명예훼손이다^[25]. 명예훼손 항목에서 간략히 4줄로 설명이 되어 있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 및 표현하고, 가능하다면 구체

적인 사례까지 포함시켜서 명시하면 망치부인 뿐만 아니라 다른 인터넷 방송 BJ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VI. 결론

인터넷 방송의 지속적인 발전과 진화는 한국 사회에서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방송이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지고 부가적 논란들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인터넷 방송의 특징을 보다 입체적으로 연구 할 필요성은 적절해 보인다. 오랫동안, Afreeca TV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르는 게임이나 먹방 이었으며, 학술적 논의들도 게임과 먹방에 집중 되어 있었다. 그러나 혼란스러운 한국 사회와 맞물려, 시사/정치 분야도 인터넷 방송이라는 생태계에서 새롭게 논란이 되는 분야이며, 이에 따라 본 연구가 시작 되었다.

그 결과, 인터넷 방송에서의 나타나는 표현의 자유는 음모론 인지, 아니면 토론의 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탐구 하였다. 그 결과, 불법적 분석 및 결과에 중요성을 더하기 보다는, 인터넷 방송의 표현의 자유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인터넷 방송을 규제함에 있어서 정확히 어디까지 수준의 규제 및 처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연구하고 정의를 내려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례로 연구된 BJ 망치부인의 경우에도, 다양하고 독특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단지 의견을 제시할 뿐이지 일반 미디어와 같이 특종의 자료를 수집하거나 취재를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BJ 망치부인은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해석할 뿐이지, 한국 사회의 문제점들을 직접 해결하거나 영향력을 주기에는 다소 미비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사/정치 분야에서 인터넷 방송은 취재라기보다는 토크쇼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며, 시청자에게도 사실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끼치지 않다고 생각 될 수도 있다. 중요한 점은 인터넷 방송이 기존의 미디어와 구성 요소와 표현의 자유에는 언급된 것처럼 어느 정도 차이가 있으므로, 인터넷 방송을 접근하고 해석함에 있어서 다른 “형식”과 “구조”가 존재하는 것을 인지할 필요성을 나타낸다. 뉴미디어 시대 뉴스 소비자들의 뉴스 콘텐츠 소비실태 분석을 입체적으로 분석한 연구처럼^[26], 그들의 연구처럼 인터넷 방송의 소비실태를 추가적으로 연구하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여러 가지 한계점들을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BJ 망치부인을 사례 중심으로 하였다. 하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탐구하였기 때문에 보다 집중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을 할 수 있었으나, 다른 시사/정치 관련 BJ들을 생략함에 있어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시사/정치 관련 개인 인터넷 방송을 하는 다른 BJ들을 탐구하여 비교 했으면 더욱 의미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다소 주관적인 분석 및 해석을 실시하였다. 여러 데이터(BJ 망치부인의 방송 시청, Afreeca TV 이용 약관, 인터넷 방송 관련 뉴스 기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 등)을 사용하여 최대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려고 노력을 하였으나,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으면 더욱 학술적으로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셋째, BJ 망치부인의 방송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류하지는 않았다. 어떠한 내용을 그리고 왜 방송 했는지에 대하여 에피소드 별로 메타 분석을 하였으면 보다 BJ 망치부인의 성향과 철학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망치부인의 명백한 “오류”를 분석하지 못하였다. 망치부인은 일반인들이나 기존의 미디어가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제시 하였는데, 때로는 명확하게 사실이 아닌 오류인 내용도 다소 존재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정확히 어떠한 방송 내용들이 오류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않은 미비점이 있다.

References

- [1] Yeongji Seo, “Ex-President Park’s Bribe Has Increased from 433 Billion to 592 Billion”, Hani, Apr 2017.
- [2] Jeongseouk Han, “Common Mistake About Freedom of Media and Expression”, Future Korea, Feb 2017.
- [3] Seong Ku Hong, “A Study on Web-casting Development and Its Service System”,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 45, No. 1, pp. 115-137, Aug 2006.
- [4] Sungil Ryu, Sunmi Lee, “Development Direction of Video Contents Services in Mobile Era: On the Case of Afreeca-TV”, The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pp. 155-156, May 2013.
- [5] Kangseok Kim, “Industry Condition of Internet Video Contents and Diagnosis of Direction of Improvement”, Focus on MCN”,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Apr 2016.
- [6] Seolye Kim, Eun Yu, Jaemin Jung, “The Impact of Viewing Motivation and Social Viewing on Continued Use and Willingness to Pay in the Personal Broadcasting Service: Focused on Afreeca TV”, Review of Culture & Economy, Vol. 19, No. 3, pp. 57-84, Dec 2016.
- [7] Sukhee Han, “Exploring the Traits of Popular Channels of Afreeca TV”,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Vol. 17, No. 2, pp. 33-38, Apr 2017.
DOI: <https://doi.org/10.7236/JIIBC.2017.17.2.33>
- [8] Yoosung Kim, “Famous 6 Afreeca BJs Go to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Which Realizes that Social Responsibility Has Increased”, eDaily, Feb 2016.
- [9] Hyeonjin Son, “Who Is Hammer Wife Doing Internet Broadcasting on Live”, Asia Economy, Mar 2016.
- [10] Aram Lee, “Famous People: Afreeca BJ ‘Hammer Wife’, Kyeongsun Lee”, Newspaper and Broadcasting, pp. 48-49. Aug 2008.
- [11] Miran Kim, “Hammer Wife Goes to Jail and Prepares a Trial of Appeal”, Gobar News, Nov 2012.
- [12] Seojun Lee, “Hammer Wife’ Kyeongsun Lee Prepares a Claim for Damages About Hundreds of Millions of Won Against ‘Left Hang Up The Head’ and a Nation, JTBC, Mar 2016.
- [13] Hyunah Kim,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Claims ‘Regulation of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Needs Cooperation Rather Than Enforcement’”, eDaily, Jul 2017.
- [14]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Communication Civil Complaint FAQ”, 2017.

- [15] Jaemin Lee, "Media and Law", Seoul: Communication Books, 2013.
- [16] Hyunwoong Moon, "Left People Claims 'The Background of Terror on Ambassador Lippert is the United States'. It is Another Unreasonable Conspiracy Theory. Chosun Ilbo, Mar 2015.
- [17] Kyeongsun Lee, "Pig Stimulant Covers by a Picture of Room Salong? Is a Memo Written by Minsoon Song 2nd NLL North Korea Fabrication? North Korea Does Not Ask South Korea's Opinion Regarding Minsson Song Issue!", April 2017.
- [18] Sijik Lee, "Problems and Resolutions of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Feb 2015.
- [19] Heejung Ahn, "For Drug-like Internet Broadcasting, Regulation Authorities Should Take Action", ZDNET, Jul 2016.
- [20] Yongsik Moon, "There Is No Talent That Wins Over Steadiness", Paju: 21Century Books, 2011.
- [21] Bohee Han, "Conspiracy Trend or Our Attitude to Prepare Conspiracy Theory", Literature & Society, Vol. 26, No. 4, pp. 296-315, Nov 2013.
- [22] Sujin Oh, "People's Coalition for Media Reform Represents Media Policy for The Next Government", Yonhap News, Apr 2017.
- [23] Minkyung Jung, "Law for Cleaning Fake News? It Could Be Oppression for Criticizing Presidential Candidate", Media Today, Apr 2017.
- [24] Miyeon Kim,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Suggests Self-Regulation Guidelines for Internet Broadcasting Service Company, News Tomato, Oct 2016.
- [25] Afreeca TV, "Policy Information", 2017.
- [26] Jinbong Choi, Misun Lee, "News Content Consumption Analysis of News Consumers in The Era of New Media",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7, No. 2, pp. 207-218, Feb 2017.

Website

<http://afreecatv.com/gtv7>

<https://www.youtube.com/user/MrPark2012/featured>

저자 소개

한 석 희(준회원)



- 2013년 12월 University of Utah 커뮤니케이션 학사
- 2017년 6월 한양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 수료
- 현재 PlayVR 근무